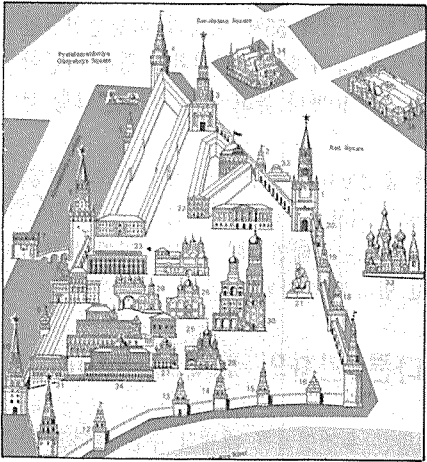


크렘린홀

김윤기



1. 스파스카야탑문, 정부요인의 출입문
2. 4, 5,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성탑
3. 보로부츠키야 탑문, 일반관광객의 출입문
6. 트로이츠키야 탑문, 일반관광객의 출입문
21. 레닌상
22. 소련방 정부청사
23. 대회궁전
24. 크렘린 대궁전
25. 사원광장
26. 우스펜스키 사원
27. 브라고베시첸스키 사원
28. 알한게리츠키 사원
29. 그라노비타야 궁전
30. 이반大帝의 종탑
31. 무기창고
32. 레닌 묘
33. 빛실리 사원
34. 소비에트 역사 박물관
35. 무명 용사묘비
36. 금백화점

● 14세기때 「제3의 로마」로 불려

12세기의 모스크바는 목조가옥이 드문 드문 있는 한적한 시골마을에 불과했다. 유리·도르고르키공이 모스크바강과 네그린나야강 합류점에 천연의 요새를 발견하고 이곳에 목책의 성벽을 쌓은 것이 모스크바의 시작이다. 그러나 당시의 모스크바城은 그냥 단순한 군사적 요새이었을뿐 러시아의 수도는 아니었다.

1240년 몽골軍이 침공, 키예프를 초토화 시켰다. 당시 러시아의 영웅, 알렉산드르 네프스키킨이 이곳으로 이주, 도시건설을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정치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그뒤 1380년, 당시의 모스크바왕 데미트리 이바노비치가 모스크바의 남쪽 둔강 평원에서 몽골군을 격퇴, 개선하면서 모스크바는 「성스러운 도시」가 되고, 러시아인의 정신적 중심지가 된다.

1450년에는 비잔틴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러시아正教를 수립했는데, 그로부터

3년뒤 비잔틴제국이 멸망하자 자동적으로 모스크바가 「正敎의 총본부」가 되었다. 이때부터 모스크바 시내에는 여기저기서 寺院건립이 시작되었는데, 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명장(名匠)들이 고가로 초빙되어 건축공사를 지휘했다.

14세기후반의 모스크바는 목조도시에서 석조도시로 탈바꿈했다.

크렘린궁전이 건립된 것은 15세기말 이반3세때다. 이반3세는 비잔틴제국 마지막 황제의 조카 소피아와 결혼하고, 스스로 비잔틴의 후계자라 칭하며 모스크바를 콘스탄티노플(제2의 로마)을 계승한 「제3의 로마」라고 부르게 했다.

● 크렘린의 출입구는 3개 塔門

크렘린은 28만평방미터의 터에 세워진 3각형의 궁전이다. 3각형중 두변은 강을 끼고 뻗어 저절로 요새가 되고, 한쪽변의 성벽은 앞쪽에 넓은 광장을 마련했다.

이 광장의 이름은 상업광장이라는 의미

의 「도르그 광장」이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붉은 광장이다. 성벽과 탑이 붉은 색 벽돌로 지은 건조물이고, 또 광장에서 붉은기를 흔들고 각종 정치 퍼레이드를 벌여 「붉은 광장」이란 별명이 붙었다.

크렘린궁에는 3개의 출입구가 있다. 서쪽의 것이 트로이츠키아탑, 북쪽의 것은 보로비츠키아탑, 남쪽의 붉은 광장정면에 있는 것이 스파스카야탑이다. 탑 밑으로 출입문이 있다. 이중 서쪽과 북쪽의 탑문은 일반 관광객의 출입문이지만, 스파스카야탑門은 공용문이다. 고르바초프는 이 문으로 출입한다.

트로이츠키아탑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온통 유리로 된 초현대식 건축물이 눈에 뜨인다. 이것이 이천명을 수용하는 대회궁전이다. 공산당대회는 물론, 오페라, 발레 등 국가적 큰 행사가 이곳에서 벌어진다. 1961년에 세워진 새 건축물이다.

그 옆에는 「무기창고」가 있다. 이름은 무기창고지만 실체는 박물관이다. 이 안에는 옛날 황실과 사원소유였던 값진 보물들

▲크렘린 궁전의 서쪽에 있는 붉은 광장. 중앙 멀리 보이는 것은 빛살리 사원





◀ 크렘린 궁전 앞 붉은 광장에 있는 소비에트 역사 박물관

이 전시되고 있다. 무게 16킬로짜리 에메랄드가 박힌 승복(僧服)이 있는가하면 영국여왕 엘리자베트1세(16세기)가 러시아 황제(보리스 고도노프)에게 선물한 화려한 마차도 있다.

● 세계에서 제일 큰 「빙어리 王鍾」

크렘린 한복판에는 광장이 있는데 3개의 사원이 이곳에 있다. 우스펜스키寺院, 브라고베시첸스키寺院, 알한게리스크寺院 등이다. 쿠스벤스키寺院은 북부이탈리아, 비잔틴 양식을 혼합한 우아한 건축물로 역대황제의 대관식이 열리던 곳이다. 금빛으로 장식하여 황홀한 느낌을 준다.

브라고벤스키寺院은 모스크바에선 대표적인 러시아적 건축물이다. 황제·귀족들의 세례식·결혼식이 열렸고, 계단위에서는 중요한 황제의 칙령이 발표되기도 했던 곳이다. 9개의 황금색 돔이 경이롭다.

알산게리스크寺院은 러시아의 역대 황제들의 무덤이다. 47비가 이 안에 묻혀있다. 하얀벽 푸른빛 돔이 인상적이다.

이 사원 바로앞에 이반大帝의 종탑이 있다. 82미터나 되는 종탑 안에는 21개의 종들이 있고, 그 입구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종(王鍾)과 왕대포가 있다. 왕종은 직경이 6.6미터나 되어 큰 집채만한데, 이 종은 소리가 나지 않는 병어리 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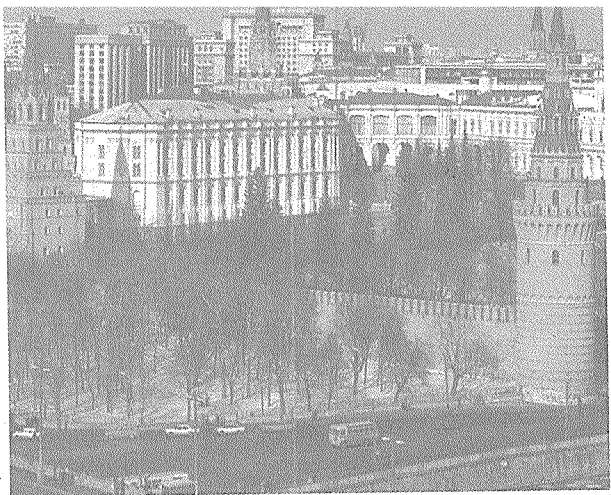
18세기때 당시 러시아의 주조기술을 집대성한 야심작이었으나, 제작도중 화재가 발생했는데 누군가가 물을 끼얹어 한귀퉁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병어리종이 되었다한다.(우리나라에서는 7세기에 훌륭한 신라범종을 제작했다.)

크렘린대궁전은 모스크바강을 끼고 남쪽을 향해 앉아있다. 동쪽(사원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라노뵤타야궁은 15세기 이탈리아의 명장들이 만든 작품이다. 현관을 들어서면 넓은 싸롱이 나타나는데, 이곳에서는 황실이 주최하는 파티가 열렸다. 이반雷帝가 카잔을 정벌하고 연 축하연, 피오트르大帝의 전승 축하연이 이곳에서 열렸다.

그옆에 있던 윈 크렘린대궁전은 1812년 불타 없어졌다.

그 자리에 러시아인 건축가들이 모여 새 궁전을 지었는데, 그라노뵤타야궁과 그 뒤에 있는 체레모이궁을 연결, 대 궁전이 탄생

▶ 동쪽에서 본 크렘린 궁전.
 정면에 대회 궁전의
 웅장한 모습이 보이고,
 그 뒷쪽에 무기창고
 건물이 있다.
 왼쪽의 붉은 타워
 건물은
 트로이츠키야 탑문.



생했는데, 이 안에는 방이 700여개가 있다. 이 방들을 밝히는데 촛대가 2만여개가 불을 켜다 한다.

소련연방정부청사는 크렘린궁의 북쪽에 있다. 3천명을 수용하는 최고간부회의장은 1934년에 세워진 것이다.

● 시벨건 벽돌 건축물로 둘러싸인 붉은 광장

스파스카야塔門 바깥쪽은 붉은 광장이다. 7만3천평방미터 넓이의 이 광장은 소련의 국력을 과시하는 퍼레이드가 열리던 곳이다. (필자는 89년도 메이데이 퍼레이드를 이곳에서 참관했음)

이 광장의 남쪽에는 바실리 브라젠스키 寺院이 있다. 묘한 생김새를 가진 이 사원은 16세기 이반雷帝가 카잔을 정복하고 그 기념으로 지은 건축물이다.

이 寺院의 설계자는 포스토니크나 바르마, 2인합작이었는데, 사원이 완성된 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경탄, 똑같은 건축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설계자의 눈을 뽑아버렸다 한다.

중앙에는 레닌묘가 있다. 붉은 색의 화강암으로 만든 이 묘는 언뜻 보기엔 퍼레이드때 사용하는 건조물처럼 보인다.

레닌 유해는 23계단을 내려간 땅속에 유리로 덮인 관속에 묻혀 있는데, 공산정권 시대엔 참배객이 줄을 잇던 곳이다. 지금은 철수논의가 일부에서 일고 있다.

붉은 광장의 북쪽 끝에는 국립역사박물관이 있다. 이 건물도 시벨건 벽돌로 지었다. 옛날에는 모스크바대학의 교사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1881년 붉은 벽돌건물이 서고, 혁명후 역사박물관이 되었다. 이 안에는 30만점의 전시품이 있는데, 이반雷帝가 입던 옷, 나폴레옹이 도망갈때 벗어버린 의상등이 전시되고 있다.

붉은 광장 건너쪽에는 굼백화점이 있다. 소련최대라는 이 백화점은 1893년에 세워진 건축물인데, 연간 8천명이 찾아오고, 관광코스중에도 꼭 끼이는 명소다. 그러나 살만한 상품들이 별로 없어 「10화점」이 아니라 「10화점」이라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다. 72

〈필자= 해외의학교류회장. 최신여행정보 발행인〉